

kiri Weekly

2015.1.19 제317호

포커스

2014년 보험산업 회고(I): 수입·원수보험료

글로벌 이슈

FT, 2015년 세계 주요 이슈 전망 발표
미국 연금시장 경쟁 확대 및 동향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2014년 보험산업 회고(I): 수입 · 원수보험료

김진억 수석담당역,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2014년 보험산업 수입 · 원수보험료와 관련한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2년 세계개편안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저축성보험 쓸림현상 해소를 위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셋째, 사적연금 부문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이 고성장하였으나 개인연금은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넷째, 계속해서 저조한 원수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였던 자동차보험이 보험료 인상 등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음.
- 2014년 전체적인 보험료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개편안,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 변화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는 보험료 규모의 양적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수익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요 발굴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임.

1. 저축성보험,¹⁾ 기저효과 지속으로 역성장 시현

- 2014년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나, 제도 변화로 인한 신규수요의 급격한 변동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2012년 발표된 세계개편안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4년 2월까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으며, 이의 영향으로 2014년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손해보험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1년까지 상품 경쟁력이 유지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수요 위축세를 보여 왔으며, 그동안의 성장 여력 약화로 2014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임.

1) 생명보험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의 장기저축성보험을 의미함.

- 그러나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저축성보험 신규수요가 2014년 하반기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혜택의 장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²⁾ 판매 확대 노력 지속

■ 저축성보험으로의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보장성보험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2008년 이후 도래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역마진 우려가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2012년에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하고 2013년과 2014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감.
- 손해보험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던 신규수요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두 자릿수의 높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손해보험 장기 운전자보험의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보장범위 확대와 같은 보험회사들의 상품개발 노력도 계속되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2014년 하반기 들어 판매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으로 대부분 종목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임.

3. 사적연금 부문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 개인연금³⁾의 경우 그동안 지속된 신규수요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2014년 전체 보험료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또한, 2013년부터 대면채널의 연금저축 예정신계약비가 생명보험회사 300%, 손해보험회사 500%에서 생·손보 모두 300%로 인하되어 손해보험 대면채널의 연금저축보험 판매 유인이 줄어들음.⁴⁾

2)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종목을 의미함.

3)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함.

4)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참조.

- 2014년 퇴직연금 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임.
 - 정부는 2015년 말까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해 최소한 70%를 적립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퇴직연금 보험료 유입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0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데다 기타 공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도 이어지고 있어 2014년 4/4분기에도 퇴직연금 보험료 확대가 예상됨.

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실적 개선

- 지속적으로 보험료 실적이 악화되었던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4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보험료 인상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확대 추세와 같은 긍정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와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물량요인과 가격요인⁵⁾이 모두 악화되었고, 2011년부터 부진한 원수보험료 실적을 보였음.
 - 그러나 2014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데다 4월부터 중·소형사를 시작으로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회복세가 나타남.
 - 특히,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가 자동차보험료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차 중심의 고가 자동차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임.

5. 요약 및 시사점

- 2014년 전체 보험산업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산업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전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부진한 수입·원수보험료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나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저축성보험 역성장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낼 것임.
 - 손해보험의 경우도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 여력이 약화된 데다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크게 물량요인인 자동차 대수와 가격요인인 보험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됨.

일반손해보험까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제한적인 회복세에 머무를 것임.

■ 과거 보험산업과 관련한 제도 변화⁶⁾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저축성보험과 관련한 급격한 신규수요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후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1월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제도 개선 직전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한 반면 제도 개선 직후에는 신규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2011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수요가 늘어났으나 최근 이러한 수요확대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
- 이처럼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보험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험료 규모의 양적 성장에 의존하기보다 수익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노력이 강조될 것이며, 새로운 수요 발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단기간 내에 과거와 같은 높은 보험료 증가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보험료 규모의 양적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수익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용구조 개선, 사업비율 관리, 보험회사 전반에 걸친 업무절차의 비용 효율성 개선이 요구됨.
- 고령층 대상 서비스 확대, 해외시장 진출, 다양한 종류의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 보장 등의 신성장 발굴 노력도 필요함. **kiri**

6) 2011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2012년 세제개편안 발표, 201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이 있음.